“마애불 모시기는 방편…여러분의 ‘와불’ 찾아라”

조계종 미래본부 공동기획

열암곡 마애불 바로모시기 천일기도 1년

조계종 제37대 집행부의 핵심 종책 ‘천년을세우다’의 일환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대작불사의 원만회향을 위해 지난해 4월 28일 입재한 천일기도가 1년의 시간을 보냈다. 올 하반기에는 마애불 입불 모의실험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천일기도 1년을 맞아 5월 4일 불국사가 열암곡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마애부처님을 향한 뜨거운 신심이 한자리에 모인 원력의 현장을 취재했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천일기도 1년 기념법회 현장. 사부대중이 빈틈없이 열암곡부처님 앞을 가득 채웠다.

경주=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여러분이 와불을 객관화시켜서만 보면 안 됩니다. 와불을 보는 순간 내가 와불이 돼야 해요. 내 깊은 마음속에 서려 있는 주인공을 확인하고 깨달아서 와불 불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 정성 없이 부처님만 바로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동이 편치 않은 여든하나의 노스님이지만 열암곡 마애부처님 앞에 모인 사부대중에게 전하는 사자후만큼은 누구보다 강건했다. 부처님을 바로 세우기 전 불자들이 ‘일체중생 개유불성’의 진리를 깨달아 부처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벼락같은 일성이다. 사자후의 주인공은 불국사 승가대학원장 덕민 대종사.

덕민 대종사는 5월 4일 조계종 미래본부의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천일기도 1년’을 맞아 열린 불국사 주관 기념법회에서 이 같은 특별법문에 나섰다. 지난해 천일기도 입재 당시 ‘천년을 세우는 선시’를 지어 발표했던 대종사는 이날 제법 따가운 봄볕을 뚫고 열암곡 마애부처님 앞까지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덕민 대종사는 여든하나의 나이에도 열암곡을 오를 수 있었던 건 불사에 함께하는 공덕 덕분이라며 법문을 시작했다.

천일기도와 불사의 원만성취를 기원한 덕민 대종사의 당부는 간단했다. 아무 생각 없이 부처님이니까 잘 모시자는 마음만으로 불사해선 안 된다는 것. 대종사는 부처님을 일으켜 세우는 것보다 불사에 동참하는 이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함을 역설했다.

덕민 대종사는 “산이 산을 보고 물이 물소리를 듣는다. 물이 내가 되고 내가 물이 되는 것이 바로 화엄의 세계”라며 “마음의 청정함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몸의 노예가 된다. 무명의 세계에서 모습과 색깔, 소리에 끌려 다니면서 내 주인공을 잃어버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종사는 이어 1086년 여산 동림사에서 상총 선사와 밤을 새워가며 선학을 토론한 뒤 깨달음을 얻은 소동파(1036~1101)의 일화를 인용해 불자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자세를 설했다. 소동파는 상총 선사에게 “그대는 왜 무정설법은 듣지 않고 유정설법만 들으려 하는가”라는 말을 듣고, ‘무정설법’을 화두로 삼은 다음 날 여산폭포 소리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에 소동파는 ‘계곡의 폭포 소리가 부처님의 무진장 설법인데 어찌 산천의 아름다운 경치가 청정한 부처의 몸 아니랴. 밤새도록 쏟아진 팔만사천 미묘한 무정법문을, 다른 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치를 설명해보일 수 있을까’라는 내용의 오도송을 지었다.

5월 4일,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불국사 대중 300명 모여 법회
승가대학원장 덕민 대종사 법문
“불사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자”

덕민 대종사는 “부처님은 누워서도, 보살로서도, 총무원장으로서도 설법한다. 우주에 충만하기 때문”이라며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건 하나의 방편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와불(본래면목)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40분에 걸친 대종사의 감로법문에 300여 사부대중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여기에 더해 한 시간에 가까운 다라니기도를 올렸다. 불국사 대중의 간절한 염원은 천일기도 1년과 맞물려 또 다른 동력으로 거듭났다.

불국사 사부대중은 박완규 불국사 신도회 수석부회장이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은 나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불사”라며 “통일신라의 꿈과 비원을 실현하는 거룩한 불사가 성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미래본부에 따르면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입불 모의실험에 들어간다. 약 1년간의 모의실험을 거쳐 안정성과 적정성 평가가 끝나면 입불이 추진되지만, 모의실험에서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다른 방법으로 보존 처리를 모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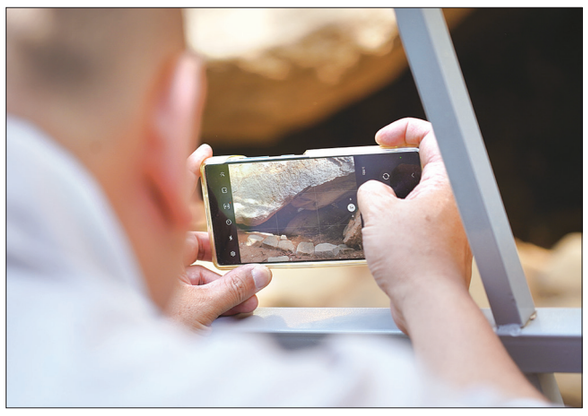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는 자금과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 등 각계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되진 않는다”면서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을 바로 모시겠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하다. 내후년 초파일까지는 바로 모시는 것으로 총무원장스님을 비롯한 종단 대중이 뜻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1년간 모든 법회에서 다라니기도를 올리며 불사의 원만회향을 기원한 기도법사단장 환풍 스님은 “이곳에서 기도하고 가피를 받았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 덕에 힘든 줄 모르고 1년을 보낼 수 있었다”며 “부처님이 바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정진하고 남산이 불국정토로 거듭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서원했다.

한편 기념법회에는 덕민 대종사를 비롯해 불국사 주지 직무대행 종천 스님, 경주 분황사 주지 성제 스님, 포항 죽림사 주지 성웅 스님, 포항 보경사 주지 탄원 스님, 대구불교방송 사장 운암 스님, 포항사암연합회장 덕화 스님, 동국대 WISE캠퍼스 정각원장 철우 스님, 이동협 경주시의회 부의장, 류완하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 김영일 국립공원공단 생태탐방이사, 진병길 신라문화원장 등이 함께했다.


마애불 앞에서 법문하는 덕민 대종사.


불국사 스님들이 다라니기도를 하고 있다.


마애불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한 스님.


법회에는 300여 불국사 대중이 함께했다.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사단법인 불교 정중종
일죽 망이산성 연 등 사

주지 도 심
- 사회부장
- 안성경찰서 경승회 감사
- 안성불교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
- 前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16기~17기
- 일붕문도중앙회 수석부회장
- 동국대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여성수석부회장
-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CEO총동문회 회장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48-37(화봉리 69-1)
TEL (031)674-5765 | FAX (031)674-5769 | Mobile. 010-3714-9351